

3. 朝鮮通信使行列の理解・조선통신사 행렬의 이해

A. 清道旗(청도기)

清道旗は通信使の行列の一番前で道を開く旗です。青のもとに紅色で"清道"二文字が記され、旗の枠は紅色の火炎模様で裝飾されました。

청도기는 통신사 행렬의 맨 앞에서 길을 트는 깃발이다. 청색 바탕에 붉은 색으로 "청도" 두 글자를 적어 놓았으며, 깃발의 테두리는 빨간색 화염 모양으로 장식하였다.



1711年(正徳度)朝鮮通信使行列図, 登城行列2の中(辛基秀蔵)
1711년(소우토쿠년) 조선통신사행렬도, 등성행렬 2중(신기수소장)

B. 吹打樂隊・취타악대

通信使の行列で音楽を演奏した吹打樂隊です。鉦、銅鼓、喇叭、太平簫、螺角などの管樂器と打樂器を演奏しながら行進する姿です。樂工の多彩な服飾と多様な樂器が名前とともに詳しく描かれており、朝鮮後期の吹打樂隊の隊列の姿と関連して参考になる様子です。

통신사 행렬에서 음악을 연주한 취타악대이다. 쟁, 동고, 나팔, 태평소, 나각 등의 관악기와 타악기를 연주하며 행진하는 모습이다. 악공들의 다채로운 복식과 다양한 악기가 이름과 함께 상세히 묘사되어 있어 조선 후기 취타악대의 면모와 관련하여 많은 참고가 된다.



1711年(正徳度)朝鮮通信使行列図(辛基秀藏)
1711년(쇼우토쿠년) 조선통신사행렬도(신기수소장)



朝鮮通信使登城行列図、帰路中(下関市立長府博物館藏)
조선통신사등성행렬도、귀로중(시모노세키시립조후박물관 소장)

C. 書記・서기

三使に随行し、使行の諸事案を記録する書記です。紗帽(サモ)に團領姿で日本人たちの護衛を受けながら行進する姿です。通信使に随行した製述官、写字官、書記は、文章が優れているか、字が上手な人物を選んで選抜され、これらの人が日本に残した筆跡と筆談の記録が多数伝わっています。

삼사를 수행하며 사절단 행차의 여러 사안을 기록하는 서기이다. 사모에 단령(조선시대 관원이 착용하던 둥근 깃모양의 관복) 차림으로 일본인들의 단출한 호위를 받으며 행차하는 모습이다. 통신사를 수행하였던 제술관, 사자관, 서기는 문장이 뛰어나거나 글씨를 잘 쓰는 인물을 가려 선발하였으며 이들이 일본에 남긴 필적과 필담의 기록이 다수 전한다



1711年(正徳度)朝鮮通信使行列図(韓国国史編纂委員会蔵)

1711년(소우토쿠년)조선통신사행렬도(한국국사편찬위원회소장)

D. 良醫・양의

日本では、朝鮮の医術に対する関心が高いため、通信使が日本を訪問するたびに良医1人と医員2人が随行しました。当時、良医で来日した直長、奇斗文は日本の医師と薬剤の使い方、針術、高麗人参の真偽鑑定法などについて質疑応答をしましたが、その内容が日本側記録の"桑韓医談"などに盛り込まれて伝えられています。

일본에서는 조선의 의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 통신사가 일본을 방문할 때마다 양의 1명과 의원 2명이 수행하였다. 당시 양의로 일본에 간 직장(直長) 기두문은 현지의 의원들과 약제의 사용법, 침술, 인삼의 진위 감정법 등에 대하여 질의 문답을 나누었는데 그 내용이 일본 측 기록인 「상한의담」 등에 담겨 전한다.



1711年(正徳度)朝鮮通信使行列図(韓国国史編纂委員会蔵)
1711년(소우토쿠년)조선통신사행렬도(한국국사편찬위원회 소장)



朝鮮人來聘大行列畧図(東京都立中央図書館蔵)
조선인내빙대행렬략도(동경도립중앙도서관 소장)

E. 従事官・종사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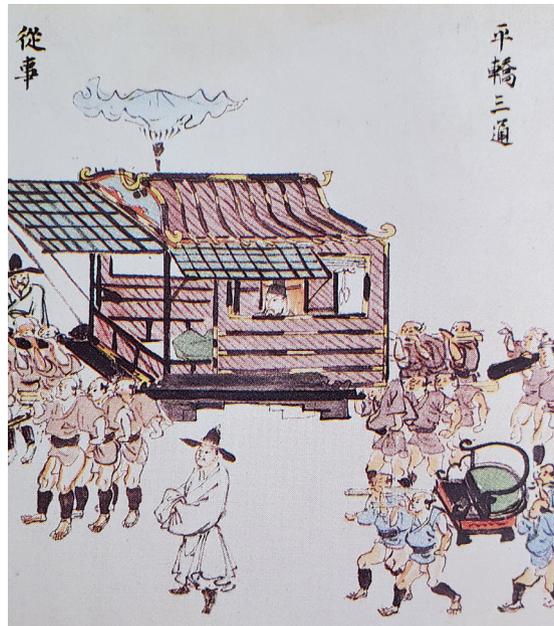
従事官の服色は正使・副使と同じですが、他の部隊の行列は簡素な服装です。

従事官は正使・副使と共に三使と称され、使行日程を記録して報告し、一行の監察と隊列の点検など業務を担当しました。

종사관의 복장색은 정사, 부사와 동일하나 부대 행렬은 다소 간소한 편이다. 종사관은 정사, 부사와 더불어 삼사로 일컬어지며, 사절단 행차 일정을 기록하여 보고하고, 일행의 감찰과 대열의 점검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1711年(正徳度)朝鮮通信使行列図(韓国国史編纂委員会蔵)
1711년(소우토쿠년)조선통신사행렬도(한국국사편찬위원회 소장)



1682年(天和2年)朝鮮通信使行列図巻、狩野水敬筆(ニューヨーク市立博物館蔵)
1682年(텐나2年)조선통신사행렬도권, 카노미즈타카 그림(뉴욕시립박물관 소장)

F. 小童・소동

官服を着た使臣と軍人の中に髪を結い、長く伸ばした幼い顔の若者が見えます。彼らは見聞を広めるために使行団に随行しましたが、時には舞踊や歌などで長旅の疲れや旅の退屈さを和らげてくれる役割もしました。

관복을 입은 사신과 군인들 가운데 머리를 땅아 길게 늘인 옛된 얼굴의 소동이 보인다. 이들은 견문을 넓히기 위해 사절단을 수행하였지만 때로 춤이나 노래 등으로 긴 여행의 피로와 여정의 무료함을 풀어주기도 하였다.



1711年(正徳度)朝鮮通信使行列図(韓国国史編纂委員会蔵)
1711년(소우토쿠년)조선통신사행렬도(한국국사편찬위원회소장)



1682年(天和2年)朝鮮通信使行列繪卷,小野等林筆(江戸博物館蔵)
1682년(텐나2년)조선통신사행렬회권,오노토우린 그림(에도박물관 소장)

G. 副使・부사

副使は全体的に正使と類似した姿で描写されていますが、顔が正使とは別に描かれており、対象人物の特徴を生かした写實的画風を確認することができます。三使たちは使行の日録である日記を著し、当時の使行人員、旅程、主要事件などを詳細に記録しました。その総数で現在残存が確認される記録は約40編です。

부사는 전체적으로 정사와 유사한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으나, 얼굴이 정사와는 다르게 그려져 있어 대상 인물의 특징을 살린 사실적 화풍을 확인할 수 있다. 삼사는 사절단의 일지인 일기를 저술하고, 당시 사절단 행차 인원, 여정, 주요 사건 등을 상세히 기록하였다. 이런 자료 중 현재 전하는 것은 약 40편이다.



1711년(소우토쿠년)조선통신사행렬도(한국국사편찬위원회 소장), 부사(임수간)



1682년(텐나2年)조선통신사행렬도권, 카노미즈타카 그림(뉴욕시립박물관 소장)

H. 正使・정사

正使は赤色の制服に金冠を着用した姿で、虎皮の座布団を敷き、青色の傘蓋をかぶせた橋子の上に乗って朝鮮と日本の護衛の行列に囲まれています。

1711年使用当時、正使趙泰億が徳川家宣の侍講だった新井白石と宴会音楽について交わした会話が「座間筆語」に記されています。

정사는 붉은색 조복에 금관을 착용한 모습으로 호피 방석을 깔고 청색 산개를 씌운 가마 위에 앉아 조선과 일본의 호위 행렬에 둘러싸여 있다. 사절단 방일 당시 도쿠가와 이에노부의 시강이었던 아라이 하쿠세키와 연회 음악에 대하여 나눈 대화가 「좌간필어」에 담겨 전한다.



1711年(正徳度)朝鮮通信使行列図(韓国国史編纂委員会蔵) 正使 趙泰億
1711년(쇼우토쿠년)조선통신사행렬도(한국국사편찬위원회소장) 정사 조태억



1682年(天和2年)朝鮮通信使行列図巻、狩野水敬筆(ニューヨーク市立博物館蔵)
1682年(텐나2年)조선통신사행렬도권 카노미즈타카 그림(뉴욕시립박물관 소장)

I. 龍亭子・용정자

日本に送る国書が奉安された「龍亭子」です。龍亭子は詔書、玉冊のような貴重な物を運搬する時に使われ、屋根には金色の龍飾りがあります。行列のなかの輿とは違い、朝鮮の役人が直接護衛しています。龍亭子の中には將軍の習職を祝い、両国間の友好増進を願う内容の国書と高麗人參、絹などの贈り物の一覽である「別封」があります。

일본에 보내는 국서가 봉안된 가마 “용정자”다. 용정자는 조서, 옥책과 같은 귀한 물건을 운반할 때 쓰였으며, 지붕에는 금색의 용의 장식이 있다. 행렬도 속의 가마와 달리 조선의 교군들이 직접 경호하고 있다. 용정자 안에는 장군의 취임을 축하하고, 양국간의 우호 증진을 바라는 내용의 국서와 고려인삼, 비단 등의 선물 목록인 ‘별봉’이 있다.



1711年(正徳度)朝鮮通信使行列図(辛基秀藏)
1711년(소우토쿠년) 조선통신사행렬도(신기수소장)



1682年(天和2年)朝鮮通信使行列図巻、狩野水敬筆(ニューヨーク市立博物館蔵)
1682年(텐나2年)조선통신사행렬도권, 카노미즈타카 그림(뉴욕시립박물관 소장)

J.馬上才・마상재、別破陣・별파진

走る馬の脚の下に身を隠すなどの技を披露する馬上才と火砲を扱う特殊な技術をもつ別破陣。1635年に日本側の要請によって、馬上才を試演した後、翌年の来日から通信使には必ず馬上才人が同行しており、当時、日本で朝鮮の馬上才の人気が非常に高かったからです。

달리는 말의 다리 밑으로 몸을 감추는 등의 기술을 펼치는 마상재와 화포를 다루는 특수 기술인 별파진이다. 1635년 통신사 행차시 일본 측 요청에 따라 마상재를 시연한 이후 다음해 방일부터 통신사 중에는 반드시 마상재인이 동행하였으며, 당시 일본에서 조선 마상재의 인기가 매우 높았다.



1711年(正徳度)朝鮮通信使行列図(韓国国史編纂委員会蔵)
1711년(소우토쿠년)조선통신사행렬도(한국국사편찬위원회소장)



1711年(正徳度)朝鮮通信使行列図、登城行列②中
1711년(소우토쿠년)조선통신사행렬도、등성행렬②중

K. 轟・독、刑名旗・형명기

통신사행렬의一番前に立てていた斗と刑名旗です。斗は大きな三枝窓に牛の尾または赤い毛をつけて作りました。形名とは軍事訓練の際に使われる旗や太鼓などの各種通信用具を意味しますが、この絵には王命を下す旗である"蛟龍旗(こうりゅうき)"が描かれています。

통신사 행렬의 맨 앞에 세우던 독기와 형명기이다. 독기는 큰 삼지창에 소의 꼬리 혹은 붉은 털을 달아 만들었다. 형명이란 군사 훈련시에 쓰이는 깃발과 북 등의 각종 통신 도구를 의미하는데, 이 그림에는 왕명을 내리는 깃발인 '교룡기'가 묘사되어 있다.



1711年(正徳度)朝鮮通信使行列絵巻(佐賀県教育員会蔵)
1711년(소우토쿠년正徳度)조선통신사행렬회권(사가현교육위원회 소장)



1711年(正徳度)朝鮮通信使行列図、登城行列②中
1711년(소우토쿠년)조선통신사행렬도、등성행렬②중

L. 寫字官·사자관

寫字官は外交文書を取り仕切る承文院、王の御製・御筆などを奉安し、これを編纂・刊行する奎章閣、そして奎章閣の姉妹機関として、經籍の印刷などを仕切る校書館に所属する技術職の吏屬です。彼らは文書を正写する仕事を担当し、また中国や日本使節団にも加わって修行しました。

사자관은 외교 문서를 관장하는 승문원(承文院), 임금의 어제(御製)·어필(御筆) 등을 봉안(奉安)하고 이를 편찬·간행하는 규장각(奎章閣), 그리고 규장각의 자매 기관으로 경적(經籍)의 인쇄 등을 관장하는 교서관(校書館)에 소속된 기술직 이속(吏屬)이다. 이들은 문서를 정사(正寫)하는 일을 담당하였고, 또한 중국이나 일본 사절단에도 참가하여 수행하였다.



1711年(正徳度)朝鮮国書捧呈行列図、辛基秀蔵・1711년(정덕도)、조선국서봉정행렬도、신기수소장



1711年(正徳度)朝鮮通信使行列図、帰路行列中
1711년(쇼우토쿠년)조선통신사행렬도、귀로행렬중



朝鮮人来聘行列図(尼崎市教育委員会蔵)
조선인래빙행렬도(아마가사키시교육위원회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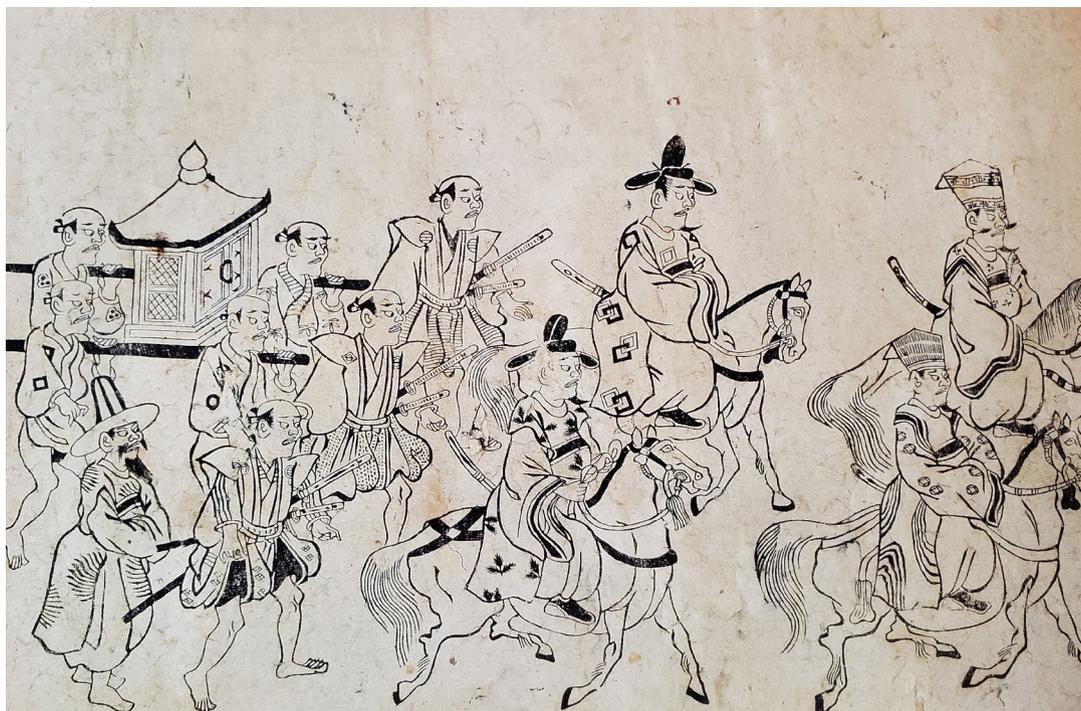
M. 絵で見る朝鮮通信使行列図・그림으로 보는 조선통신사행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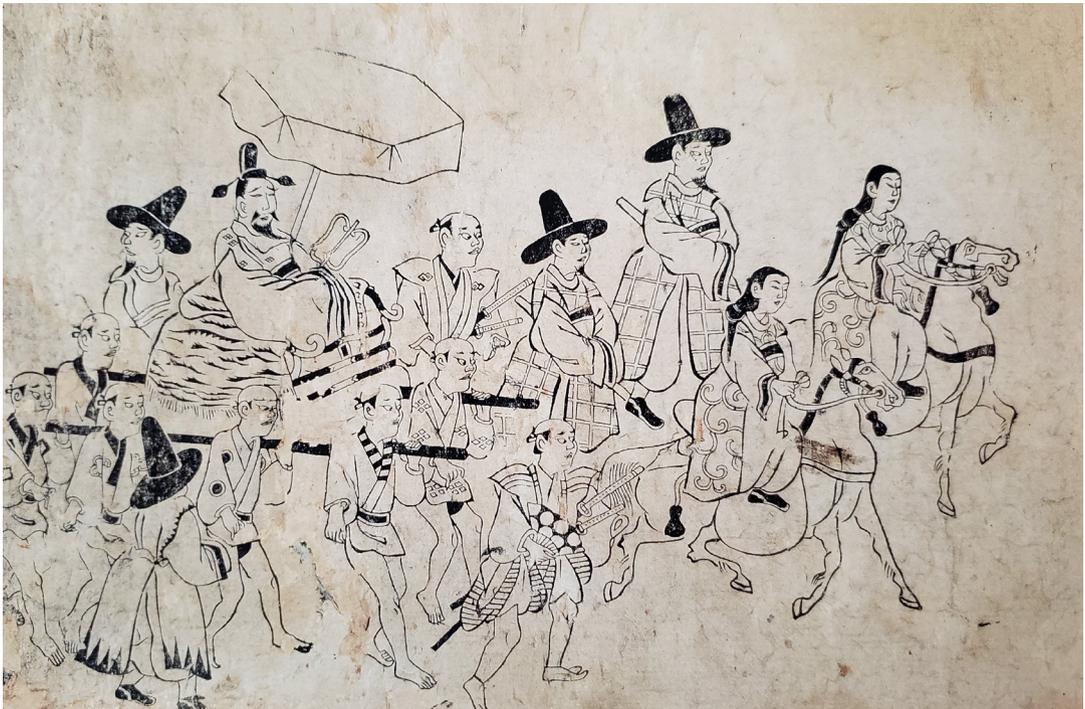
1 朝鮮通信使行列図巻・조선통신사행렬도권

本図巻は珍しい木版行列図巻です。巻首と巻末を欠きますが楽師、国書輜、小輜に乗る正使、副使を描いた部粉が残存しています。菱川派のてによる天和度通信使図巻と伝えられます。(辛基秀)

이 도권은 희귀한 목판행렬도권이다. 첫 권과 마지막 권은 없으나 악사, 국서가마, 작은 가마에 탄 정사, 부사를 그린 부분이 남아있다. 히사카와파의 “천화도통신사도권”이라고 전해진다.(신기수)







② 朝鮮人來聘大行列畧図・조선인내빙대행렬략도

国際交流の乏しい東アジアの世界において、朝鮮通信使の来日は江戸幕府のみならず民衆の広く注目するところのものであり、出版元は事前に肩書入りの行列図版を売り出した。民衆はそれらを手にして、通信使見物に熱中した。(東京都立中央図書館蔵)

국제교류가 적었던 동아시아의 세계에서 조선 통신사의 일본 방문을 에도막부 뿐만 아니라 민중이 널리 주목하자, 출판사는 사전에 직함이 들어간 행렬도판을 팔기 시작했다. 민중은 그것들을 손에 들고 통신사 구경에 열중했다.(동경도립중앙도서관 소장)







異例の対馬における来聘礼の通信使行列は、数多の版画として刊行されました。本行列畧図は「文化八年・菊屋七郎兵衛が多色刷」したもので板元は松雲堂。世界史でも例のない固定した東アジア社会の朝鮮と日本の善隣友好関係は一九世紀になってからも続けられ、文化年度の易地辟礼の通信使行列の木版画の刊行はきわめて多く、友好の保持を記名しています。朝鮮も文化度以降、ヨーロッパやアメリカの船が朝鮮にやってきて、外による紛争が生ずると鎖国政策をとりました。日本に対しては親善関係を続けました。互いに内政に苦しんでいましたが、幕府の財政難にも拘わらず、将軍家定の襲職が一八五三年に行われ通信使の招聘礼の提案なされたとの情報が京都に伝わるや、版元は第一三回目年月日を空欄にした文化度の通信使行列を刷って販売を始めました。奈良街道の脇本陣をつとめた旧家に伝わる通信行列絵巻は文化度の易地聘礼をひきつぐものです。

이례적으로 대마도의 내빙례의 통신사 행렬은 수많은 판화로 간행되었다. 본 행렬모음화는 분카 8년 키쿠야 시치로헤베가 다색으로 인쇄한 것으로 원판은 송운당(소운도우)의 것이다. 세계사에서도 유례가 없는 고정된 동아시아 사회의 조선과 일본의 선린우호관계는 19세기에 이르러서도 계속되었으며, 분카년 역지빙례 통신사 행렬 목판화 간행은 상당히 많아 후호의 유지를 드러내고 있다.

조선도 1811(분카)년 이후 유럽이나 미국의 배들이 조선에 들어오며 따라 분쟁이 생기자 쇄국정책을 폈지만, 일본에 대해서는 친선관계를 계속했다. 서로 내정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막부의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1853년에 장군 이에사다의 취임식 후 통신사의 초빙례 제안이 성사되었다는 정보가 교토에 전해지자, 판원은 13번째 연월일을 공란으로 한 분카년의 통신사 행렬을 찍어 판매를 시작했다. 나라 가도의 와키모토진을 역임한 가문에 전해 내려오는 통신행렬 에마키는 문화년의 역지빙례를 잇는 것이다.